

## 1212(월) 히브리서 1-4장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훌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2:1)”

성도들은 안팎의 일들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혹독한 박해, 신앙으로 인해 조롱받는 일(10:32-34),  
세상의 회의적인 시선과 압박에 지쳐갔습니다.  
몸과 마음이 신앙으로부터 점점 물러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감정과 정서를 다독이기보다  
시험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12-14, 4:1-2)

히브리서는 매력적이고 각색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성육하신 말씀이시고,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4장).

히브리서는 3가지 사실을 명료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하고 계신일, 하실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2:2)

나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❶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 ❷ 시험을 넘넘히 이겨낼 영적인 근육을 가졌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히브리서 1-4장